



# 대학 교수의 정치 참여를 반대함



김인회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 I. 한국교육현대사 속에서 대학교수의 정체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사회학의 위세가 한창 드높아 온갖 학문분야들이 사회학적 관점을 끌어들이며 새로운 이론 모형을 만들어 내던 때에 미국 사회학계의 거장 소로킨(P. A. Sorokin)은 그의 책 『현대의 사회학적 이론들』(*Sociological Theories of Today*)에서 요즘에 사회학자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나 좀 봐, 나 이론 만들고 있어"(Look, Ma, I'm theorizing)하며 노는 듯이 거시적인 또는 미시적인 문제들을 쉽사리 추상화하는 유행에 휩쓸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회학적 연구들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쏟아져 나왔지만, 그 대부분은 평범하거나, 모방의 냄새를 지녔거나, 아니면 정말 독창적이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끌어 놓은 백과사전 같은 수준일 뿐, 새로운 사회학의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 없었음은 물론이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등장했던 들쟁, 배버, 쉐러, 시프랑거, 딜타이 같은 뛰어난 사회학자들에 견줄 만한 인물조차도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한 바 있다.<sup>1)</sup> 미국 인문사회과학계에 대한 소로킨의 질타는 20여 년 후에도 유효했던 것 같았다. 1980년대 말 블룸(A. Bloom)이 『미국정신의 종말』(*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에서 "우리는 마치 선교사들에게 발견되어 전도 받아 기독교로 개종하기는 했지만 계시 이전과 이후에 따르는 체험을 전혀 갖지 못한 야만인과 어느 정도 비슷한 듯 싶다. 프로이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들 대부분은 오이디푸스를 결코 들여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그리스, 로마, 유대교 및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전적으로 선교 내지는 가교역할을 해 준 독일인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게 되고, 그 지식이 아무리 심오하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전해 준 사람의 자기 나름의 해석일 것임에 틀림없

1) Pitirim A. Sorokin(1966), *Sociological Theories of Today*,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and London, pp.3~5.

다. 또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은 그들 생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만 전해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지적으로 의존한 결과 우리가 지금과 같은 난국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그 지적 의존의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이 자기의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긴급한 과제다.”<sup>2)</sup> “고 갈파한 것을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학교수의 정치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자리에서 '60년대 미국 사회학계나 '80년대 인문학계에서 있었던 자기 반성적 평가가 왜 나와야 하는가 싶기도 하겠지만, 필자 생각에는 소로킨이 한 말은 고사하고 불륨이 한 말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학교수 사회에 우리처럼 크게 들려야 마땅할 소리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 교수들 중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 유학하지 않은 교수의 수가 오히려 드문 편에 속할 정도로 서구화 내지는 미국화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온 것이 1950년대 이래의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 풍토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한, 이제는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적 종주국이라 할 미국의 학문 풍토에 대한 자체 평가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보아야 할 성실기 때문이다.

소로킨이 한 말과 꼭 같은 내용의 소리가 우리나라 교수 사회에서는 크게 들린 적이 없다.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에 쏟아져 나온 그 많은 연구물들 중 정말로 독창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비록 업적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을지라도 그 대부분이 형식 요건만 갖춘 그저 평범한 연구이거나, 더 많은 경우 표절과 모방의 냄새가 짙은 속임수 연구이거나, 제 것 남의 것 할 것 없이 교묘하게 끌어 모은 잡동사니일 뿐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플라톤나 아리스토텔, 공자나 맹자는 물론, 퇴계, 율곡, 남명, 다산을 발견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할 만큼 스스로 자기 직분에 충실한 소로킨을 우리가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역사가 짧은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록 교수직의 역사가 짧다하더라도 불륨이 한 것과 같은 반성적 성찰은 진작부터 나올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최근 들어 단편적으로 학문의 자주성 문제가 거론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런 논쟁들에서조차도 대부분 남의 논쟁을 흉내낸 듯한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비유하자면 이른바 '종속이론'에 종속된 의식 상태에서 전개하는 신 식민지 논쟁이나 비판이 이른바 진보적 이론의 탈을 쓰고 등장하여 춤추는 무대를 관람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학계가 아닌가 싶조차 하다.

불륨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마치'가 아니라 정말로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발견되어 저들에게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전향한, 적어도 서양의 기준으로는 '야만인'이다. 기독교의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개시 이전과 이후에 따르는 체험은 전혀 갖지 못한 채 이른바 근대 학문을 접한 것이다. 하물며 학문을 연구하고 최고 수준의 인재를 교육하는 전문가로서의 교수라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자의식에 눈 뜰 기회도 우리의 현대 교육사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국인으로 교수직에 종사하는 경험을 갖게 된 역사가 1945년 이후부터이니 교수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일한 대학인 경성제국 대학에서는 한국인 교수를 채용한 적도 양성한 적도 없었다. 몇몇 사립전문학교에서 가르치던 전문 인력이 교수직에 비견할 법한 고급 인력이었을 뿐이니, 한국인 교수직제는 해방 직후 대학의 발족과 더불어

2) Allan Bloom(1987),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Simon and Schuster: New York, p.156.

〈표 1〉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성장

연도별	학생 수	교원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1945	7,819(100)	1,490(100)	5.2
1965	141,636(1,811)	8,609(578)	16.5
1975	318,683(4,076)	11,416(766)	27.9
1985	1,451,294(18,561)	33,895(2,275)	42.8
1995	2,343,984(29,978)	58,977(3,958)	39.7

생겨난 것이나 진배없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해방 후 대학들에서는 교수채용 기준에서 식민지 시대의 학력만을 존중했을 뿐, 당시까지 명맥이나마 남아있던 조선조 선비들의 교육정신과 학문에 대해서는 일교의 가치조차 두려고 하지 않았다.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은 물론, 각종 학교, 개방대학, 방송통신대까지 모든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원 수의 성장을 요약하여 광복 이후 반세기 동안의 추세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sup>3)</sup>

대체로 반세기 동안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수에서 3백 배, 교원 수에서는 4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0년대까지는 30명 미만이다가 '80년대부터는 40명 전후로 늘었다.

한국 현대사에서 고등교육 정책의 역사를 상론하지 않더라도, 학생 수에서나 교원 수에서 1980년을 기점으로 점진적 변화가 아닌 비약적 폭증 현상이 나타난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교수 수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급상승은 계속 되어왔다.

1980년대부터 교수 인구가 급증한 현상의 의미는 적어도 전문인력으로서의 교수의 자질 면에서 볼 때에는 1945년부터 1965년 사이에 교수 인구

가 5.8배 가까이 증가한 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듯 싶다. 1945년 당시 교수 요원으로 교육받은 전문인력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상황에 사회정치적 혼란과 전란을 겪어 가면서 교수 요원을 1,500여 명이나 확보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1960년대까지 증원된 교수 요원들의 상당 부분은 1945년 현재 초등교원이 19,729명, 중등교원이 3,219명이라는 사실<sup>4)</sup>을 감안할 때 일제 하 사범교육을 거쳐 양성된 전문인력으로 충당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당시로서는 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을 지닌 인력 집단이 그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수라는 직업의 전문성, 기능, 역할, 책임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자기 인식조차도 적어도 1960년 4. 19혁명 과정에서 교수단의 데모가 있기 전까지는 싹튼 적이 없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나 4. 19 당시의 교수들의 행동은 교육자적 내지는 지사적 교수의 행동이었을지언정 학자적 내지는 전문가적 교수의 행동이었다고 분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대학사에서 교수의 정치 참여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3) 교육부(1998), 『교육 50년사 1948-1998』, 교육 50년사 편찬위원회, pp.443~444.

4) 앞의 책, p.150.

4. 19 교수 테모는 분명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으나, 그로써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적 토양이 풍부해졌으며 정신적 자주성이 확립됐는가, 나아가 민족사적 자기 인식에 터한 고등교육의 정신적 위상이 높아졌는가 하는 등등의 문제들에 관해서는 평가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4. 19 당시와 그 이후 대학가를 몰아댄 상황 논리를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대학사의 실정이긴 하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교수의 정치 참여 여부를 놓고 찬반 논의를 하게 되기까지 우리 대학가의 건강하지 못한 현실이 지니는 정신사적 의미를 천착하기로 한다면 19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교수 문화의 정체라고 말할 수 있다.

## II. 양극적 교수상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수라는 직업은 일단 가장 좋은 직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분이 보장되고, 보수가 좋을 뿐 아니라 1년에 적어도 석 달은 속된 표현으로 놀고 먹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직업이다. 국민소득 평균에 비해 본다면 우리나라 교수의 봉급은 선진국에 못지 않을 정도로 높다.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보다 유리한 편이다. 연봉제를 실시하는 선진국 대학에서는 방학 동안 월급이 없을 뿐 아니라, 연구업적과 교수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탈락 또는 축출 당하는 비율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수가 되는 길은 그만큼 험난하다. 외국에서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와도 전임교수로 채용되던 것이 1960년대까지의 대학교수 시장이었다. 그만큼 교수 요원으로 준비된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우리 대학의 역사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980년대 들어 대학 인구가 폭증하고 교수 요원의

수요도 급증한 것이 사실이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교수 요원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1990년대에는 이른바 박사 실직자 집단의 규모가 국가적 문제라까지 거론될 만큼 커졌다.

교수 지망생의 인구가 늘고, 자격을 갖춘 우수한 후보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가 안팎에서 교수직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다양하면서 또한 양극적이다. 내가 평소에 귀동냥으로 듣고 눈으로 보아 알게 된 교수상들을 주관적으로 분류,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 학계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명실상부 탁월한 학자교수상이다. 드물긴 하지만 분명 이런 부류의 교수들은 꾸준히 늘어 왔다. 그들 대부분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연구 업적을 영어로 발표한다.

② 비슷한 연배, 전공, 관심분야끼리 새로운 학계 풍토를 일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교수 동아리들이다. 마치 '70~'80년대 대학가의 동아리 문화를 연상케 하는 새로운 교수 문화다. 열성적이고 사명감을 지닌 비교적 젊은 교수들이다.

③ 집단적이기보다는 개성적이기를 고집하는 학자교수상이다. 이런 외로운 늑대 같은 교수들이 늘고 있다. 이 부류 중에는 부지런하면서 탁월한 학자도 있고, 때로는 게으르면서 뛰어난 학자도 있다. 이런 교수들의 공통점은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 않은 채 자기 연구분야에 몰두하며 일가를 이루는 자주적 학자들이라는 것이다. 현장 연구에서건 문헌 연구에서건 관계없이 대개는 국학분야 종사자들이다.

④ 성실 고지식한 초·중등학교 교사 같은 교수상이다. 학생 지도에 정성을 다하고, 학교 일에 최선을 다한다. 여자대학 쪽에서 더 많이 만나는 교수상이다.

⑤ 자기 자신의 생각도 없으면서 스스로 대가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머리 나쁜 모범생 교수상이다. 다양한 외국 책을 번역 강의하는 것을 최고의 교수법으로 확신한다. 외국 유학 출신 중에 많지만, 때로는 국내파 중에도 있다. 이념적 장식까지 갖춘 경우에는 자칫 민족주의자나 우국지사로 오해하기 알맞다. 종속이론에 의해 종속 당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체 정계의 움직임에 민감한 편이다. 연대를 짓기 좋아하고 사회운동에 열심이다.

⑥ 교활한 속물 교수상이다. 이 부류의 공통점은 하찮은 금전적 이익을 향해 전력투구한다는 것이다. 연구비가 되었건, 채택료가 되었건, 심사료가 되었건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교수들 중 이른바 교재 채택료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집단만 수아내도 대학교수 문화가 일시에 정화될 것이다. 이 부류의 교수들은 한결같이 교내 보직에 목을 맨다. 표절, 무고, 투서, 모함, 모략, 패거리 짓기를 다반사로 한다.

⑦ 머리도 나쁘고 배짱도 없지만 부지런한 교수상이다. 이 부류의 교수는 되도록 많은 강좌를 맡으려 애쓴다. 그것이 유일한 소득 증대의 방도이기 때문이다. 학생들 쪽에서는 죽을 노릇이지만 상관없다. 자기 학교보다 남의 학교에 많이 나가면 된다. 유유상종이기에 서로 품앗이 할 곳도 많다.

⑧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능력도 있지만 교수의 본분에 몰두하기보다는 사회적 출세에 몰두하는 교수상이다.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정치적 격동기나 선거철이 되거나 정계 또는 내각에 변화 조짐이 보이면 학교에 잘 나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바쁘다.

⑨ 언론과 적절한 또는 적절한 못한 관계를 계속하는 교수상이다. 1970년대에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교수를 '매명의 속물'로 일컫는 소리도 있었으나, 근래에는 언론의 자체 평가 때문에 그런 부류 교수들의 언론 수명은 짧아진 느낌이다. 전공의 성

격상 언론과의 적절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교수상이 여론 주도 세력으로 자리잡아 가는 경향이 엿보인다. 그러나 가끔씩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점수 따기 원고를 쓰는 교수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⑩ 도덕성 치매증 교수상이다. 회의를 구실 삼아 휴가를 자주 하는 교수가 실제로는 골프장에서 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학생들이 골프 치는 교수의 사진 아래에다 회의중 이라고 쓴 대자보를 연구실 문에 붙인 예가 있다. 또 요즘 대학가 일각에서는 교수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수라는 이름이 부도덕한 인격과 동의어로 학생들 사이에 통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 Ⅲ. 교수의 정치 참여, 왜 안되나

우리나라에서 교수의 정치 참여가 원칙적으로 왜 부당한가 하는 필자 나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교수라는 직업의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교수라고 하는 직업인의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쉽지 않다. 일본에서 교수는 여름에도 긴 팔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 대부분이다. 목소리도 보통 사람들보다 한 단계 낮은 듯 싶다. 영국에서의 교수의 차림은 정장과 간편복 중간쯤이다. 정장의 경우에도 값비싼 최고급이 아니다. 그리고 조교에게 자기 논문을 대신 쓰게 하거나, 이런 저런 개인적 잡무를 부탁하는 경우는 일본 교수도 영국 교수도 절대 없다. 심지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는 일조차 손수 하고 도서관 반납 창구 앞에서 학생들과 나란히 줄서서 기다린다. 이는 중국 교수도 같다. 미국 교수들은 조교에게 연구 관련 심부름이나 작업을 맡긴다.

이처럼 어느 나라 교수 사회를 봐도 논문이나 저

서 내용에 남의 것을 몰래 옮겨 놓는 표절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우리나라 교수 사회처럼 표절과 도방이 혼한 교수 문화는 지구상에 없다. 그만큼 교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인데, 하물며 무슨 역량이 넘쳐서 정치 문제에까지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세계적 수준의 교수 문화를 만들기에도 인력과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교수 집단에 비하면 정치계, 관계, 기업계, 문화계 등 사회 여러 분야마다 그동안 많은 인력이 양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수들까지 강단과 연구실을 떠나야만 할 정도로 정치 종사자들의 자질과 인력이 형편없기만 하다고 볼 수 있겠는지, 적어도 교수 사회의 자질과 견줘서 속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학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더 치중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그런 뒷받침이 잘 되려면 교수들 스스로가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교수들이 직접 정치권에 뛰어 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셋째, 교수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는 대학 문화가 형성됨으로써 파생될 우리 사회의 정치지향적 가치관의 편중현상이 염려된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미칠 영향도 심각하다.

넷째, 우리의 역사, 문화, 풍토에 뿌리내릴 만큼 학문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했으면서 교수라는 직책을 기회 삼아 외래의 학문을 성급하게 받아들여 오늘의 한국 정치 현장에 실험해 보려는 유혹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학자가 흔치 않은 것이 우리나라 대학가의 현실이다. 선진국 이론의 성급한 실험대로 삼아도 좋을 만큼 우리의 현실은 안이하지 못하다. 오늘날 파탄에 직면한 제도 교육현실만 하더라도 지난날 외국학과 교육학자들

의 정치 개입 사실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한 대학 한 학과에서 얼마나 많은 장관이 배출되었는가를 자랑하기에 앞서서 교육현실 파탄의 역사에 대한 해당 전공학계와 교수 집단의 반성이 전무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직까지의 우리나라 교수 문화 수준에서는 교수가 정치 현실에 직접 참여하거나 차출되어 활약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정치 현실이나 행정관직에 참여하기로 작정한다면 그 시점부터 교수라는 호칭, 기득권, 권위를 포기하고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몰두하여 전문 정치인이나 전문관료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예로 미루어 그렇게 변신한 교수들의 경우 거의가 학자나 교수,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기보다는 몰락한 예를 많이 보아 왔기에 필자는 현직에 있는 유능하고 촉망되는 교수일수록 대학에 남아 본업에 헌신하는 쪽을 택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외국 대학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대학들이 우수한 교수인력을 정치에 위해 빌려줘도 좋을 정도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떠나도 아깝지 않은 교수가 만일 있어서 정치 참여 쪽을 택한다면 어떨까, 필자는 그것도 문제라고 본다. 대학에서 오염된 노릇을 한 교수는 정치판까지도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끝**

#### 김민희

연세대 문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화여대 교수,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장·교육철학연구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및 국학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KBS 해설실 객원해설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